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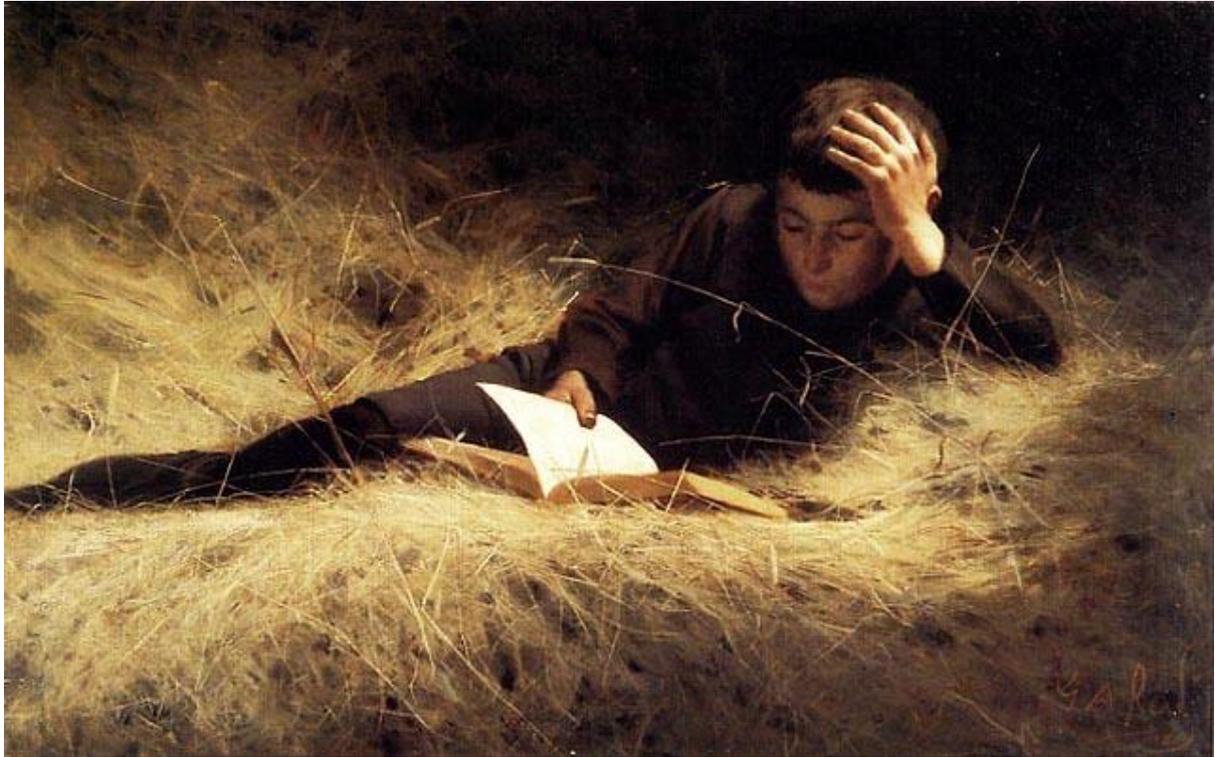
[H 갤러리] JUNE COLLECTION

6. 1. – 6. 30.

PHILIP. HAN.

George Agnew Reid(1860 - 1947, 캐나다)

6. 3. 목.



Forbidden Fruit. 1889.

George Agnew Reid(1860 - 1947, 캐나다) 이 작품을 하마터면 Ozias Leduc(1864 - 1955, 캐나다) 작품으로 포스팅할 뻔했다. 사실 처음 이 작품 작가를 찾을 때만 해도 작가가 누구인지를 밝힌 포스팅은 적었다.

궁금증이 목까지 차오를 때쯤 pinterest 한 포스팅이 이 작품은 Hamilton Art Gallery 소장 작품으로 오지아스 레덕 작품이라며 소개를 한 것이다. 반가운 정보였다. 하지만 검증은 필요했다. 그 결과 조지 애그뉴 레이드 작품이라는 것이다. WIKIART 였다.

두 작가 모두 캐나다 출신이고 동시대 사람이며 비슷한 화풍 탓에 착각을 했겠거니 했다. 한데 해밀턴 갤러리 작품 검색 결과 레덕 작품은 한 점도 없었고, 레이드 작품은 매주 수요일 갤러리 주관 영구 컬렉션 쇼케이스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작품을 6월 첫 H 갤러리 컬렉션으로 삼은 까닭은 이달 키워드를 변화로 정했고, 어떻게 하면 변화를 추동할까를 궁리 중이었다. 그 생각 중에 이 작품을 발견한 것이다. 캐나다 작가라는 점이 신선했다. The Reading 을 주제 삼은 작품 소재 역시 나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있음직한 한 장면 같아서 반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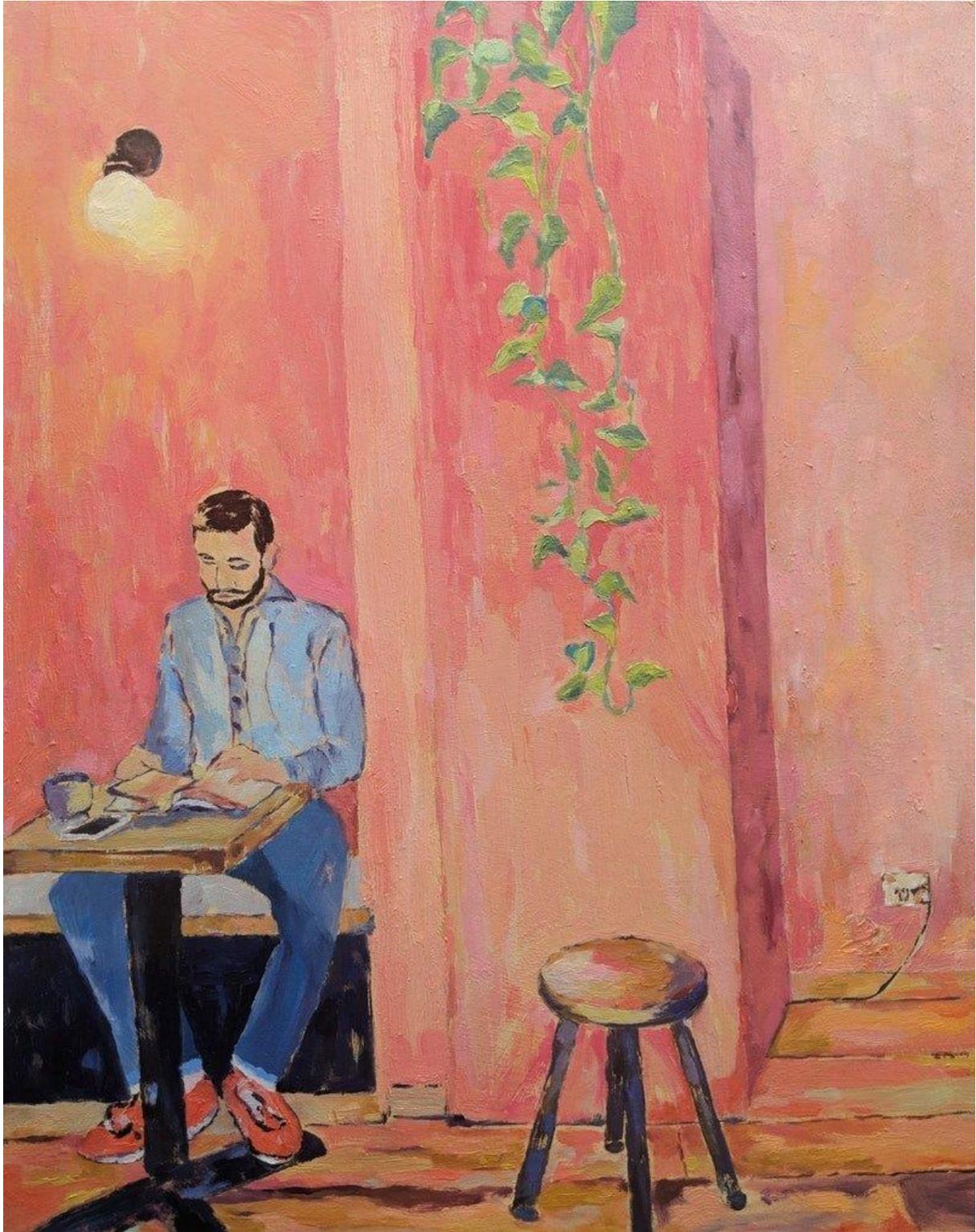
게다가 작품 이름이 '금단의 과일'이라니... 상상력이 자동 발생한다. 감시자 간섭 없는 내 아지트 한 줄기 빛이 모아진 벚짚 위에서 팔을 괴고 몰두해 읽고 있는 저 책을 읽은 저 소년에게 변화는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그 일이 캐나다를 뒤흔들었을 수도 있고, 책을 읽는 내내 자신의 심장이 미래로 향해 뛰어가는 경이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 반대 상황도 상상할 수 있지만 월 초이니 좋은 상상으로 시작하고 싶다.

별과 꽃이 아끼고 보듬고 위로하며 위안주는 안아주고 부둥켜안으며 친절하고 아름답게 있는 힘껏 정성을 다하며 진심으로 다가가서는 이 말 '사랑해' 한 마디는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유혹의 5월을 보내겠습니다.

Amanda Cutlack(호주)

6. 4. 금.



Man reading in café

Amanda Cutlack 이 작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보는 호주 시드니를
홈그라운드로 현재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 차례
전시회 기록이 남아 있고 Water Color 작품이 제법 많다.

그중 Man reading cafe 는 책을 읽는 오브제보다 배경 색상이 참 싱그럽다.
공교롭게도 신발 색상과 깔 맞춤이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 혹시 둘 중
하나는 상상 아닐까도 싶다.

여느 카페 풍경과 다를 바 없다면 참 재미없는 작품일 텐데 우측 벽면
전기 콘센트며, 그 앞쪽 의자 그리고 스마트폰을 연결해 보니 단절
빈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콘센트에 꽂힌 선이 기둥 뒤에서 사라진다.

테이블 위 남자 스마트폰과 관계가 없다. 이를 단절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전기선이 꼭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 생각이 만든 내 감정인
듯싶다. 이 감정이 의자를 빈자리라고까지 하는 듯싶다.

내 상상력이 좀 과한 듯도 싶다. 좋은 작품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는 것이
건강한 마음 상태일 텐데 말이다.

Nickie Zimov(1993 ~ ,러시아)

6. 5. 토.



As Long As You'll Be Here. 2016.

Nickie Zimov(1993 ~ ,러시아) 이 작가 2016 년 'Sexual Devotion' 전시회는 짐작컨대 파격 황홀 절정 심장을 긁어내는 소리에 갤러리 모두는 그 자리를 뜰 수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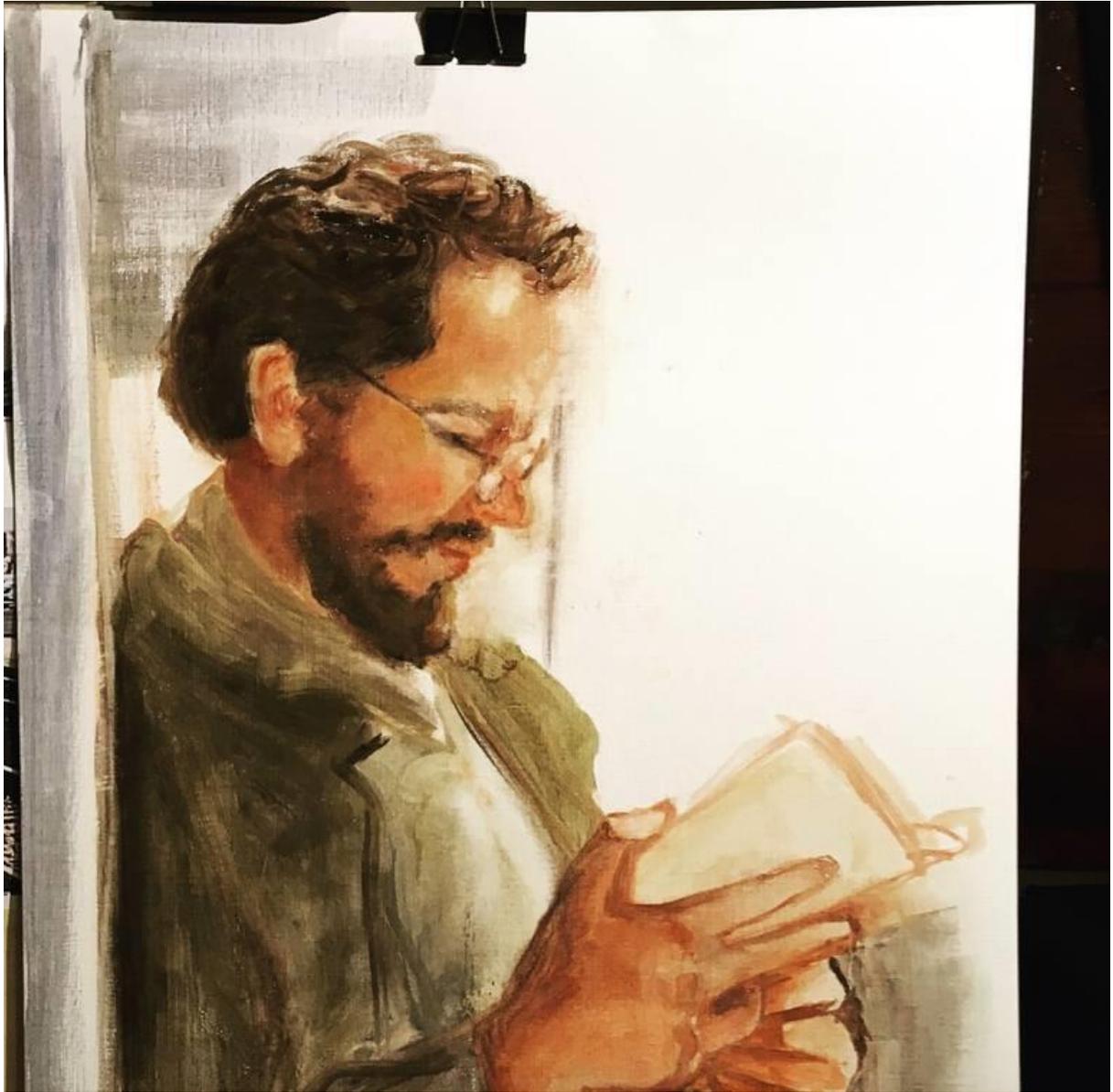
'외로움에 처한 인간의 섹슈얼리티 탐구 시리즈(saschiart)'는 니키 지모프를 단박에 주목하게 한 주제였다. 전시회 작품 80%가 Sold Out 일만큼 이 시리즈는 보는 내내 무엇인가를 탐하는 내 자신을 깨닫는다.

특히 이 작품 앞에서는 결정장애를 앓는 것 같았다. Reading 과 Sexual 이 두 개 지성 중 하나를 빼거나 놓거나 나중에 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양 손에 모두 짊어지고 싶은 욕심이라고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다.

빈 구석이 없을 만큼 심장 심실이 팍 차 팽창하는 이 기운도 좋다. 글을 읽는 속도보다 빠르고 바쁘게 움직이는 눈빛이 마주쳤을 때 정적은 이 작품이 왜, As Long As You'll Be Here 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DO VO(베트남)

6. 6. 일.



Reading man. 2018.

Nickie Zimov(1993 ~ ,러시아) 이 작가 2016 년 'Sexual Devotion' 전시회는 짐작컨대 파격 황홀 절정 심장을 긁어내는 소리에 갤러리 모두는 그 자리를 뜰 수 없었을 것이다. 기차역, 햇살을 옴팡지게 차지한 한 남자, 책을 읽는다.

작가(Do Vo, 베트남)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Saatchi art 는 작가의 그 포착력을 높이 산 듯 남자 얼굴에 스며든 빛 음영 처리가 좋다고 평했다.

하지만 내 포인트 뷰는 지금 막 기막힌 문장을 발견한 듯한 남자의 시선이었고, 한 자 한 자 잘근잘근 씹어 삼키는 입술 모양이었다.

어떤 문장을 발견한 것일까? 독서하는 저 남자가 나였다면 이 기차역에서 내가 발견한 문장은 “제 영혼과 정신의 힘을 모아 견디고 버틸 것입니다. 피고인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고 호소할 것입니다(조국의 시간 서문 11p)” 였을 것이다.

Carole Nataf(1989 ~ , 프랑스)

6. 12. 토.



Oil painting Plein Air Portrait of a young man reading in a backyard original art painting on canvas

Carole Nataf(1989 ~ , 프랑스) 작품 특징은 플레인 에어(Plein Air) 페인팅 기법과 **알라 프리마(Alla Prima)** 기법이라고 한다. 플레인 에어 페인팅은 이를테면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관행을 말한다.

모네(Claude Monet, 1840 - 1926) 작품 대부분은 이 플레인 에어 기법이고 이 분야 개척자로도 손꼽힌다. 이 기법이 가능한 했던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 덕분이다. 물감 상자, 이젤, 튜브 물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물감을 튜브에 담은 혁신은 플레인 에어 페인팅을 새로운 미술 사조로 수용했다. 그 운동이 바로 인상주의다. 한데 문제가 있었다. 풍경은 움직인다는 점이였다.

스튜디오 작품은 고정된 대상을 그린다는 점에서 정보가 많았다. 물감을 겹겹이 덧칠한 작품이 인상주의 이전 시기에 유독 많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게다가 시간까지 충분했으니 고정된 피사체를 볼 때마다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던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 같은 화풍을 반영한 것이 바로 사실주의 자연주의 미술 사조이다. 하지만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온 작품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경을 사실주의 기법처럼 캔버스에 실을 수 없었다.

이 고민의 산물로 등장한 페인팅 기법이 **알라 프리마**이다. 이탈리아 어로 '처음'이라는 뜻이다. 작가가 포착한 피사체 인상을 순식간에 그리는 것이다. 이 기법을 'Wet on Wet'이라고도 한다. 물감이 마르기도 전에 마르지 않은 상태로 작품을 끝낸다고 해서 붙인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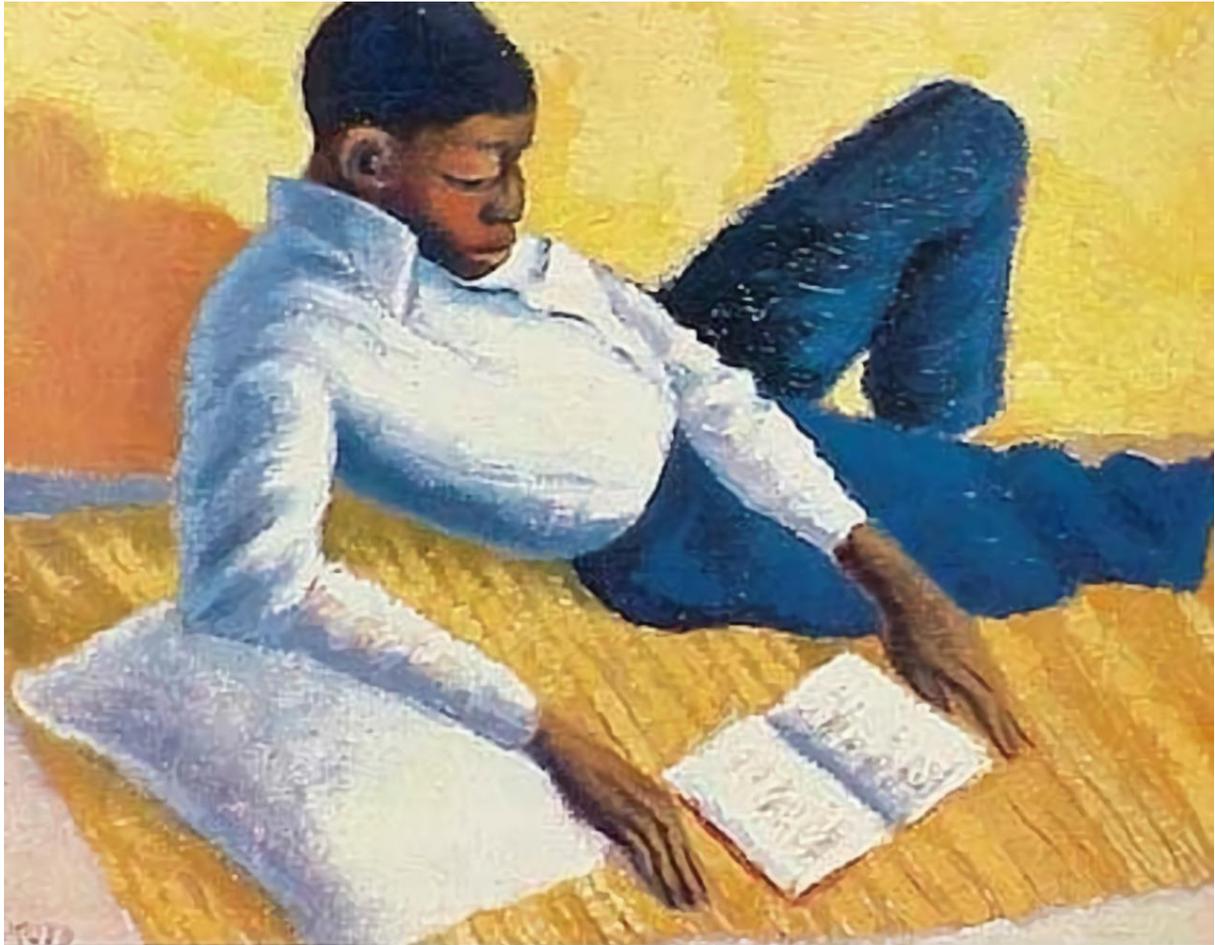
1872년 모네는 해돋이를 출품한다. '르 샤리바리' 기자였던 루이 르로이가 '그 인상만큼은 확실하지만 유치한 벽지보다 못하다'라고 혹평을 했다. 알라 프리마 기법을 몰랐던 것 같다. 공교롭게도 르로이 덕분에 모네의 해돋이는 '인상 해돋이'라는 명작이 되었고, 인상주의라는 말을 탄생시키며 새 시대 미술 사조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알라 프리마 페인팅 기법은 전 세계 예술가가 찾는다는 뉴욕 소로 거리 젊은 예술가에게는 애지중지하며 자기 개성을 뽐내는 일을 즐기고 있다.

Carole Nataf 작품 초기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런던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알라 프리마 페인팅 기법 작품을 자주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Gerard Sekoto(1913 - 1993, 남아프리카 공화국)

6. 14. 월.



Young man Reading

Gerard Sekoto(1913 - 1993,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그림을 비롯한 다수 작품은 따듯하고 경쾌하다. 아파르헤이트(Apartheid) 즉, 인종 분리 정책으로 인한 압제의 당사자임에도 세코토는 흑인에게 인간 존엄성을 부여하고 인간미 넘치는 일상적인 장면을 화폭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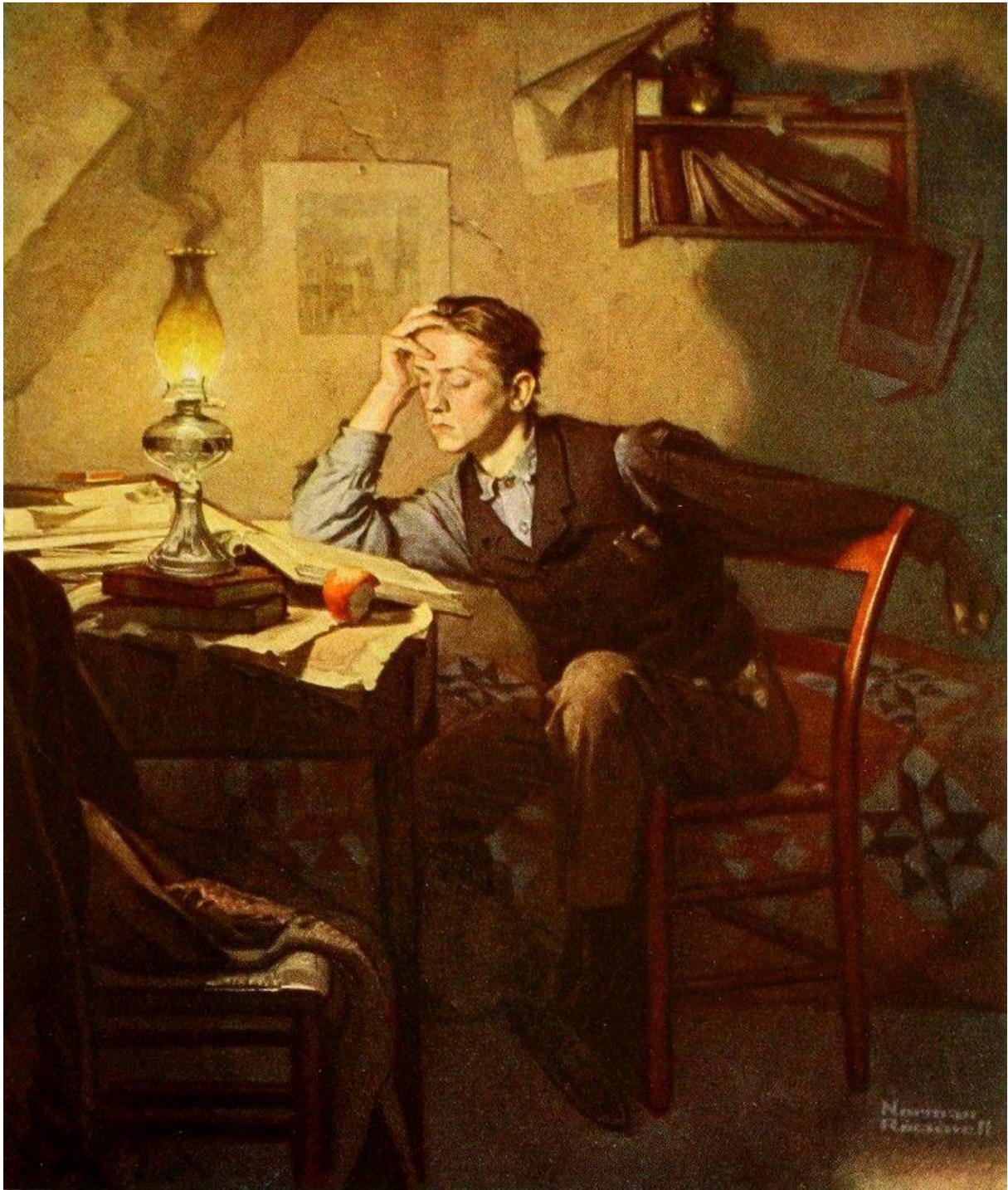
해서 그런지 세코토 작품 속 사람들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밝고 짓궂기도 하고 익살스러운 면도 있다. 내 주변에서 흔히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 모습을 통해 억압하는 당신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웅변하는 것 같았다.

이 작품 Young man Reading 역시 인물이 취한 자세는 익숙하다. 다만 배경이 아프리카 요소로 가득할 뿐이다. 팔걸이 소파를 베개로 대신하고 있고, 러그 대신 자리가 놓였을 뿐이다.

서재 배경 대신 저녁 놀이 잤아들기 시작한 아프리카 한 마을 한 청년 방일 뿐이다. 무엇 하나 백인 사회와 다를 바 없고, 내 독서 시간과도 비슷하다. 세코토가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로구나 싶었다. 내 일상 모습과 비슷한 사람은 친구이고 이웃이다. 차별하고 무시할 수 없다고 말이다. 세코토를 아프리카 미술의 Social Realism 이라 부르는 까닭도 알 것 같다.

Norman Rockwell(1894- 1978, 미국)

6. 15. 화.



Young Man Reading by the Light. 1926.

아침 시간 책을 읽는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습관은 아니다.
여러 일 중 한 가지이고 책을 읽으면 여행을 다녀온 듯도 하고 누군가를 만난 것도
같은 그 기분이 좋다. 간밤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목표관리 기법인 OKR(Objective and Key Results)이다. 한데 읽으면서 이미 존재하고 나름 정착한 MBO(Management By Objectives)와 결이 다르다고 한다. 한데 그 차이를 좀처럼 모르겠는 거다. OKR이란 말 대신 MBO를 집어넣어도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시 책을 덮었다.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혹 변화에 저항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다.

이 틈을 채운 작품이 Norman Rockwell의 이 작품 Young Man Reading by the Light(1926)이다. 작품 속 주인공 저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아 웃음이 나왔다. 노먼은 미국 중산층 가족 일상 모습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 작품 대다수가 절로 미소 짓게 한다.

혹시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 내러티브가 노먼 작품은 아니었을까도 싶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노먼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자유와 인권 선언을 기리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https://blog.naver.com/hfeel/221678951242> / rockwellfourfreedoms.org). 이밖에도 노먼은 일러스트 작가로도 활동했다.

1926년 GE는 전구를 상품으로 내놨고, 그 광고를 노먼이 맡아 작화한 것이 바로 이 작품이었다. 작품 이름에 by the Light를 붙인 까닭을 뒤늦게 알아챘다.

Louie Burrell(1873 – 1971, 영국)

6. 19. 토.



A man reading on a sofa

Louie Burrell(1873 -

1971)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일상을 캐나다와 미국에서 보냈다고 한다.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긴 작가보다는 초상화를 제법 잘 그린 작가로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듯하다.

이 작품이 수채화 인 점으로 봐서 초기 작품 군 중 한 작품인 듯하다.

게다가 당시 막 움트기 시작한 알라 프리마(<https://brunch.co.kr/@hfeel/846>)기법으로 완성한 작품처럼도 보였다.

밑그림 없이 곧바로 채색을 시작한 듯한 붓질 느낌이 인물을 제외한 오브제 등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소파에 두 다리를 뻗은 자세가 곧기만 하고, 경계 역시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는 당시 유행했던 핫템을 작품 곳곳에 숨기듯 반영한 듯 한 것 인상을 받는다.

그 첫 번째가 손에 들고 읽고 있는 책 표지가 파란색 인 점이다.

1911 년 태동한 표현주의 운동 청기사 파 영향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작품이 청기사 파가 출현한 그 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루이스 작품 대부분이 1890 년에서 1920 년 사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단서로 추론하면 그렇게 무리수를 둔 것만은 아닌 듯싶다.

두 번째는 인물에 있었다. 책을 읽고 있는 인물은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다.

정장에 세련된 헤어 스타일은 당시 인싸 젊은이의 상징적인 모습 같았다.

한데 한 손을 소파 아래로 떨어트리면 술 병과 잔이 있다는 점은 새로운 상상을 불러 일으킨다.

마치 작가가 환영할 수 없는 이방인이 작가 집에 무단 침입한 후 작가를 기다리는 무료함을 달래려고 책을 들고 앉았다가 술을 곁에 두고 기대었다가 아예 누워 버린 것은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다.

양복 상의를 입고 있는 점 또한 상상을 실제 그랬을 것처럼 느끼게 한다.

작품 속 인물이 작가와 애정 일지 애증 관계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속내를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 작품이 만약

앞서 상상한 두서너가지 애깃거리를 반영한 것이라면

당시 젊은 남성들의 핫템이 무엇이고,

그들이 누리고 싶은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작품, 더 나아가 작가의

욕망도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작품 아닐까 싶다.

Francisco Goya(1746 - 1828, 스페인)

6. 21. 월.



Men Reading. 1820~1823

Francisco Goya(1746 - 1828, 스페인) 14 개 벽화 중 하나로 알려진 작품이다. 흔히 '고야의 검은 그림' 중 '독서하는 남자', 이 어둠 속 희미한 불빛을 의지한 채 여러 사람이 모여 웃고 있다. 희망을 잊지 않은 것이다.

아, 그냥 빛이 아니었다. 책 읽는 소리가 빛을 자아냈다. 어둠을 살라 먹는 빛을 소리가 만든 셈이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앞은 깜깜한 현실임에도 책 읽는 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입이 열리고 눈도 떠진 것이다.

절망과 교차하는 희망의

소리가 책에 있다고 고야가 말하지 않는가.

Georges Valmier (1885 - 1937, 프랑스)

6. 22. 화.



YOUNG MAN READING.
Souvenir affectueux aux
amis Dandé Aout 1925

Georges Valmier (1885 - 1937, 프랑스)를 얘기할 때 두 사람을 함께 거론한다.

한 명은 폴 세잔(Paul Cezanne, 1839 - 1906, 프랑스)이고 다른 한 명은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y Picasso, 1881 - 1973, 스페인)이다.

폴 세잔의 표현 기법에서 발미에는 영감을 얻었고,

피카소와는 다른 추상 작품을 선 보였다라고 한다. 이를테면 피카소 추상화는 기하학적 구조 중심이라면 발미에는 병치한 대상을 색채로 변화를 주어 입체화 하는 방식이란 것이다.

이런 발미에 입체주의는 훗날 모더니즘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 구겐하임(guggenheim.org) 미술관 평가다. 이 작품 Young Man Reading 은 사실 발미에 작품으로 크게 주목하는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구겐하임 미술관이 평한 그 발미에 병치 기법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여기에 내가 좀 더 친근하게 느낀 한 부분이 있다. 안경이다. 얼마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한 오스트리아 한 일간지가 태극기를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사를 읽는 듯한 뿌듯함을 이 작품에서도 느낀 것이다.

'1925년 8월, 친구 Dandé 에 대한 애정 어린 추억'이라고 밝힌 이 작품 부연 설명을 읽으면서 그 친구가 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사람 아닐까라고 상상했다. 그 내막은 작가와 그 친구 Dandé 만이 알 것이다.

추상화를 감상할 때 늘 난해하다라는 감상이 앞섰다. 하지만 마치 숨은 그림 찾기하듯 내 상상력을 채워 줄 한 대상을 찾고 시야를 점점 작품 전체로 넓혀 가면 의외로 입체파 작품은 천진난만한 작품이 대다수일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발미에 추상화는 감정이 풍부해 난해함보다 따뜻하다. 이런 점이 피카소의 추상화와 다른 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Octavian Smigelschi(1866 - 1912, 오스트리아)

6. 27. 일.



Young

Man Reading. 1892.

현재 기온 29 도, 체감 온도 31 도. 습도 55%, 자외선 지수 8. 미세먼지는 없다. 어제(6. 26. 토)보다 맑은 날씨 인 오후, 책을 읽는다. 오늘 날 인텔을 만든 앤디 그루브, 위기를 사업 기회로 전환한 목표 중심 사고 부터가 시작이다. 이를 성과 지향적 일 처리 방식으로 구조화한 존 도어는 2010 년 이를 구글에 접목했고, 대성공을 거뒀다. 이것이 바로 OKR 이다.

이 방식을 경험하고 축적한 구글 벤처스 제이크 냅은 2016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콘셉트와 5일 이내 아이디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다며 SPRINT를 내놓았다. 슬랙, 블로보틀, 에어비앤비가 스프린트 성공 사례다. 인텔 성장 기폭제가 앤디 그루브의 일 처리 방식이 구글을 거쳐 After Corona 시대 성과 관리와 문제 해결 기린아가 된 셈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1980년 대 GE를 이끈 잭 웰치는 치밀한 분석적 사고를 토대로 위대한 기업을 만들었다. 1990년 대 인텔을 이끈 앤디 그루브는 영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위대한 기업의 새 지표를 창안했다고 본다. 이 두 거장의 업적을 현재 시점으로 들여다보니 당장 내가 도전 해야 할 일이 눈 앞에 선하다.

Epilog

6 월은 특별했다. 2020 년 출간한 전략경영과 문제해결 지침서 '해결에 집중하라' 책을 국내 H 그룹이 책임 급 역량 향상 과목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2021 년 남은 반년 동안 이 책을 밑알로 쓴다는 점이 감격스러울 따름이다. 게다가 #문제해결_스프린트 방식이 이번 과정을 통해 연락처에 성공한 점 또한 기쁘다.

이 말고도 '조국의 시간' 책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다. 매월 한 편 그림과 글을 쓰고 포스팅하는 H 갤러리 테마가 내게 있는데, 이번 컬렉션 제목을 '독서의 시간'으로 삼았고, 총 11 편 작품을 많은 분과 함께 감상했다.

널리 알려진 작가 작품보다는 주목받는 현대 작가 작품과 국내에는 무명에서 가깝지만 자국 내에서는 존경 받는 작가 중심으로 작품을 선정했다. 그중 가장 인상에 남는 작가는 Gerard Sekoto(1913 - 1993, 남아프리카 공화국)와 Georges Valmier (1885 - 1937, 프랑스) 이다.

세코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로 인해 상처가 깊은 자국민에게 인간 존엄성을 부여하는 작품이라는 점이 좋았다. 발미에는 추상화에 대한 내 인식의 지평을 열어 주었다. 이외에도 컨템포러리 작가로, 사치 아트도 주목하고 있는 Nickie Zimov(1993 ~ ,러시아) 작품도 인상적이었다.

이런 내 모든 일이 척척착착 진행된 데에는 여러모로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월 한달 여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곧 맞이하는 여름 7 월 동안에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